

베트남 하노이서 군산항 홍보

베트남 현지 선사·화주·포워드 등 150여명 참석... 전북도와 포트 세일즈 행사

군산시는 전북도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4일간 베트남 하노이와 하이퐁에서 군산항 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물류시장 개척을 위한 군산항 포트 세일즈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트 세일즈 추진단은 김미정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북도 군산해수청 군산세관과 선사 화주 포워드, 전북서부항운노조 및 하역사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베트남 해양청 주베트남 한국물류협회 IX 판토스 베트남 법인 등을 방문하고 현지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 공동으로 노력해 군산항 물동량 유치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IX 판토스 베트남 법인과 화물유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지난 7월에 개설한 군산~하이퐁 항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환적루트 개발 등 물동량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일 오후 6시에 개최된 군산항 홍보 설명회 행사에는 주베트남한국 대사관 임병철 행정안전관을 비롯한 베트남 해양청 관계자와 베트남 현지 선사 화주 포워드 등 물류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항 현황과 장점 인센티브 지원제도 등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 현지 해운 관계자는 군산항 및 새만금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군산항이

용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베트남 현지에서 열리는 두번째 군산항 홍보 행사로 대외적으로 군산항의 인지도를 높여 신규 화주를 유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군산항과 하이퐁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군산항과 하이퐁항의 교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항의 해외 포트 세일즈 행사는 지난 2011년에 중국 청도에서 최초로 개최됐으며, 격년제로 국내외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항만물동량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의회 윤리특위 '공개경고·출석정지 10일' 의결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식)가 1일 3차 회의를 개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심사의 건'을 심사하고 대상의원인 우종삼 의원에 대하여 '공개경고 및 출석정지 10일'로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선출된 시의원을 놓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공개경고 및 출석정지 10일'로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군산시의회 의원 이래 첫 사례로 앞으로 전라북도 지방의회 의원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그동안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1차 회의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심사의 건'을 상정하고 관련 의원 출석요구를 했으며, 2차 회의 때 대상

의원에게 소명발령 청구와 질의 답변을 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했으며, 자문 결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대상 의원에 대해 공개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등을 권고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는 대상 의원 윤리심사의 건에 대해 지난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경고 조치 결정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공개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수사기관의 진행사항을 참고해 고심 끝에 공개경고 및 출석정지 10일'로 의결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지역증진 토양개량제 공급·공동살포 추진

군산시는 농경지의 유효 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토양을 개량해 친환경 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1월까지 토양개량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급 물량은 2,318톤(11만5,917포)이며, 공급지역은 화현면, 옥서면, 수송동, 구암동, 개정동, 내운3동 6개 지역(1,219ha)이다.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패하석)는 살포 효과가 약 3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읍·면·동별 3년에 한 번씩 공급해오고 있다.

토양개량제는 적절한 시기에 뿌려줘야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농가 고령화 및 일손 부족으로 작기에 살포하지 못하고 방치될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시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위원회를 통해 공동살포 대행자를 선정했으며, 오는 11월에서 12월 까지 공동살포를 희망한 농가에 한해(8만6,997포) 무상으로 공동살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이장 및 농가에게 토양개량제 살포를 적극 독려하고, 살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방치 물량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공동살포를 통해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방치 문제가 해결되고, 적기 살포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지방상수도 노후 상수관로 정비

익산시가 시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공급 관리체계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익산시는 상수도 누수 구간을 찾아 복구하고, 급수구역을 블록화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20년 익산시가 정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손을 잡고 2024년까지 5년간 665억여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익산시 전역을 중블록 6개소, 소블록 53개소로 나눠 상수도 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 수요량 예측이나 관 노후도 평가가 용이해지는 만큼 상수도 운영 관리 효율성이 개선된다.

특히 단수나 누수 사고 시 블록식스

템을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이뤄져 보다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누수량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수도시설 개선에 재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시는 급수구역을 △팔봉 △신흥 △금강 △금마 △왕궁 △광역 6개로 나누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블록 구축이 완료된 신흥 급수구역의 경우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해 60% 수준의 우수율을 80%대로 끌어올리는 등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도 순항 중이다. 지난 7월 착공한 중앙동 15km 구간 노후 상수도관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구역에 대한 교체도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익산시가 2년 연속 국정과제 추진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행정역량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1일 전라북도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국정운영의 효율성, 책임성, 통합성 확보를 목적으로 전북도에서 14개 시·군의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시는 전년도 미달성지표와 협업지표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부진지표 보고회 등을 통해 올해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보건소,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 실시

군산시 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2023년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4개반이 실시한다. 이들은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이용시설을 주·야간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휴연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도시공원, p방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과 학교 주변 등 간접흡연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과 군산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설치 여부, 휴연실 설치기준 방법 준수 여부, 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기준 준수 사항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 기간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시설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시정조치 후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놀이체험관 등 놀이공간 구성... 이달부터 본격 운영

익산 서부권 영유아 가족의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일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은 정현을 익산시장, 최

중요 익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정수, 김대중, 한정수 도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리별라 어린이집 친구들의 축하 공연을 시

작으로 진행됐다.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모현동 롯데시네마 건물 3층 내부에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은 몸으로 놀이하는 모험 놀이터'라는 주제로 놀이체험관, 장난감 대여실, 미술, 신체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놀이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서부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족의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설치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공유재산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9월 서부권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준공했다.

9월부터 두 달간 장난감대여실 및 놀이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최적의 상태로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품질향상 간담회 실시

익산시는 지난달 30일 시공 중인 공동주택 감리단장을 대상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부실 시공 근절과 공동주택 품질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공 중인 9개 현장(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감리단장이 참석해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건설 시공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방지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감리단장들이 준비해온 자료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건설 현장의 실제적인 감리경험을 살려 균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

장 관리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시는 △건실한 시공 및 민원 해결을 위한 감리자의 적극적 역할 △우천시 콘크리트 타설 금지 △소음·진동·비산먼지 등 민원 해결 대책 마련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고형사랑 기부금제도 참여 △상주 근로자를 비롯한 소·갓기 등 우리시 정책에 적극적인 동참도 요청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